

쌍용, GS글로벌로 회사명 변경

GS그룹, 쌍용 인수 마무리 ... 정택근 사장에 김석환 CFO 선임

GS그룹은 5월에 인수한 쌍용의 회사명을 GS글로벌로 변경하고, 사장에 정택근 전 GS리테일 부사장을 선임했다.

쌍용은 7월1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회사명 변경안을 의결하고, 정택근 사장의 선임과 함께 김석환 전 GS EPS 상무를 최고재무관리자(CFO)로 선임했다.

이어 이수호 GS리테일 사외이사, 안종원 동아SF 상근부회장, 김영섭 케이지피 감사 등 3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신규 선임하는 등 주요 경영진 인선작업을 마무리했다.

쌍용은 1999년 외환위기로 쌍용그룹이 해체되면서 워크아웃에 들어갔다가 2006년 모건스탠리PE(MSPE)에 매각됐다.

GS는 5월25일 이사회를 통해 MSPE가 보유한 쌍용의 보통주 69.53%를 1200억원에 사들이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7월2일 최종 잔금을 납부함으로써 쌍용 인수를 완료했다.

GS 관계자는 “회사명을 GS글로벌로 변경한 것은 기존 트레이딩 위주의 상사기능에서 벗어나 Global Business Creator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GS글로벌은 앞으로 GS 계열사의 해외사업 컨트롤 타워로서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신사업 발굴을 통해 그룹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7/02>